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 주기쁨 교회 이효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섭리에 온지 2년이 조금 지난 어린 신앙인입니다.저는 섭리에 오기 전 독실한 천주교 모태 신앙인이었고, 천주교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 제가 소경처럼 느껴지는데 제 눈을 뜨게 해주시면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늘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께 묻고,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섭리에서의 신앙은 제가 그동안 갈망했던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주었으며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때 섭리에 왔고 섭리에 와서 현직교사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얻고 나니 마음껏 섭리를 뛰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직장생활의 굴레가 저를 힘들게 하여 생활 가운데 주님을 찾으려 노력하긴 했지만 새벽기도와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집회가 시작되었고 전도에 갈망이 커서 그때부터 본격으로 직장이 끝나면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두달 간 매일같이 전도를 나갔는데도 전도가 되지 않아, 애타하다가 여름방학기간에 생명전도를 위한 철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님께 생명으로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하며 생명전도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야를 하던 중 8월 중순 쯤 감기가 너무 심해서 헛구역질이 나오고, 육신이 버티기 힘들어 이러다 육신이 지쳐 쓰러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전도하고 싶은 저에 마음은 굴뚝처럼 솟아 올라 그날도 교회에 걸린 주님 사진을 보며 위로를 하였고, 철야를 하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 소나기 소리는 마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눈물처럼, 예수님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2시경쯤 하나님께서 제게 오신 느낌이 들었고, 처음으로 말씀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 주님의 심정을 위로해 드리고 사랑으로 그 아픈 마음 풀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제 기도의 3분의 2는 주님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 8월 29일(토) 새벽 3시 57분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날 새벽기도 때 주님을 위로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아, 내 말을 기록할지라. 어서 기록하라’라는 감동이 되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날(목요일) 꿈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그 꿈이 이날 받은 말씀하고도 연관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섭리여, 너희는 이제 나의 영을 충만히 취하였구나. 이제는 너희가 받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성령으로 저 죽은 기성을 깨워라. 깨워야 한다. 내가 어제 마지막 하늘의 성령집회를 거행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남은 성령을 물붓듯 퍼부어 주었노라. 예비한자, 받을만한 나의 섭리의 여인들은 다 받고 집회 참석한 내 사랑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을 다 쏟아 주었노라.

내 사랑들아, 너희는 이제 뛰어야 한다. 영으로 뛰어야 한다. 내 사랑을 받은 내 신부들아, 너희는 깨어 외치고 외쳐라. 나 예수는 너희를 지켜보리라. 섭리 30년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의 마지막 몸부림이 시급하구나.

너희 선생님은 이 섭리를 위해 심정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내 소망이며 희망인 내 사랑 섭리여, 내 모든 희망은 너희임을 제발 알아다오.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 섭리여, 너희는 정녕 내 애걸하는 심정과 마음을 알아다오. 알아다오. 알아다오.

내가 심정이 타들어 가도다. 누가 애타는 심정을 풀어주랴? 너희 섭리 말고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겠느냐?

제발이나 제발이나 결인처럼 너희에게 애걸하는 내 심정을 너희가 닦아다오. 닦아다오.

※이 때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하늘 아버지 내 무릎이 닳도록 간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섭리에게 힘을 주소서. 제발이나 이 사랑하는 내 섭리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내 신부들이 하나님 마음 풀어드리고자 10만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함과 몸부림이 부족합니다. 안타까운 아버지의 아들 저 예수는 발만 동동 구르며 이들의 간구를 이루기 위해 애타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들이 나와 일체되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내 심정의 못을 뺄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목숨걸고 생명구원에 앞장서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저 기성을 깨우게 하소서. 이들이 영으로 나와 함께 뛰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제발 섭리 30년의 한과 2천년의 내 한과 아버지의 6천년의 역사의 한을 풀어드리게 하소서.

어찌합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심판의 칼은 이미 지구상에 내리워졌는데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사랑 섭리인들이 영으로 뛰고 달려 이 역사를 진정 뛰고 또 뛰어 귀한 섭리역사가 찬란히 빛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당신께 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재림을 맞을 수 있는 10만의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이들이 진정

내 앞에 데려올 수 있기를...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사랑 섭리여,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를 쓰고 내가 하는 것이야. 제발 육으로 하지 말고 나와 일체되어 영으로 하라. 너희 선생처럼 나와같이 한 몸되어 영으로 하라.

오, 아버지~ 우리 섭리와 저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